μετάνοια συμπόσιον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24학번 권예성 순원입니다. 이 글은 2024년 금식수련회 이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만약 이후 저에게 순원이 생길 시 나누기 위하여 더러는 기도제목을 나누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일단 저에게 이번 금식수련회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회개의 향연(μετάνοια συμπόσιον) 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금식수련회에 앞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100개 이상 쓰고 갔지만 오히려 회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앞서서 "금식" 수련회였던 게 저에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먹기'는 그냥 영양분 섭취 그 이상의 의미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축을 담당하던 것 이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수련회를 가기 전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오한나는 등 증상이 있어서 '아, 내가 금식 수련회 가기엔 너무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식 수련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완등록까지 다 제가 했으니까 금식에 대한 두려움은 금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리고 당일 아침에 감사하게 건강이 비교적 많이 회복되어 금식수련회 당일 대구에서 아침에 ktx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날 금식 수련회를 출발할 때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동국대 CCC 지체들이랑 중앙팀 지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데 사실 평소에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지체와 버스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색했었지만 그래도 수련회에 대한 떨림반 두려움반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식 수련회에 도착해서 물건들을 가져다 두고 개회예배를 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찬양이 너무 좋다 정말 와... 찬양팀 퀄리티가 너무 나랑 넘사인데...?’ 이런 생각도 하고 ‘역시 서울지구는 달라도 다르구나...’ 같은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야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음 그래그래... 돈 내고 금식하며 100개 이상 기도제목도 준비해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개회예배 이후 1일차 저녁집회도 찬양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찬양의 열기도 좋았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저에게는 '약간의 안심’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즐겁게 드린 후 설교시간부터 하나님께선 저에게 회개할 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설교 주제였던 "기도"에 관하여 저의 회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평소에 무언가 힘든 일이 저에게 닥치면 처리 순서가 1.나 2. 구글 3. AI 4. 아빠 순장님 5.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맨날 제가 "무언가 고민이 있어요"라고 아빠 순장님께 말하면 아빠 순장님은 항상 저에게 "음... 예성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봤나요...?"라는 레파토리가 돌아보면 자주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이겨낼 힘을 얻어야하고, 그 힘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저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걸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 하신 말씀인, “어떠한 힘에 맞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도해야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의 이때까지의 연약함과 잘못 기도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에 영역, 즉 하나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회개를 한 1일차 이후 2일차, 제가 아마 새벽 5시? 6시? 쯤 기상하여 세면한 후 생활순과 함께 QT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 QT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게 해달라 고했는데 바로가 그것을 게으르다고 치부하고 일을 가중시키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갔던 내용이잖아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그 때 마음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정신상태가 영....' 와 같은 삐딱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글을 쓰는 시점에 이 QT를 다시 돌아보니, 완전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됩니다. 제가 많은 순간들 속에서 아무런 이익도 없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QT 이후 아침 예배 시간의 설교 내용은 기독교 변증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앞서 준비한 저의 기도제목 중 하나였던,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해소서"에 부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공대생입니다. 인과를 중시하고 역학을 중시하고 논리을 매우 중시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러는 "기독교는 너무 과학적이지 못해서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이때까지의 제가 너무 무지했다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존재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FACT였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가 가장 힘들었던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예배를 마치고 짝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짝은 동국대학교 캠퍼스의 요한이 형 이랑 준하 형입니다... 특히 요한이 형이 저에게 "예성아 내가 너한테 정말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군입대를 하고 나서 너의 휴가와 재정을 사용해서 어느 수련회라도 너가 참가했으면 좋겠어. CCC 수련회가 되었든 아님 너의 본 교회 수련회가 되었든."이라는 말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는 요한이 형의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나 군인의 신분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많은 현 기도제목 중 하나가 “군인의 신분 때에 저의 귀중한 시간인 휴가와 월급을 주님께 드리고 수련회에 참가하게 하소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짝기도 중 저 스스로에게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다른 중앙팀 캠퍼스 분들에게, 타 팀 캠퍼스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기도제목을 묻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짝기도 이후 특강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 특강 시간에 저는 '중독과의 전쟁' 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으러 갔습니다. 특강에서 가장 충격적인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번 째는 중독은 우상숭배로부터 기인하고 열매지 뿌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저는 항상 스마트폰, 인정 욕구, 돈, 음란, 일 등등 이런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그 중독을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의 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입니다. 중독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의 뿌리인 분노, 우울함, 수치심, 슬픔을 뽑아 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독의 반댓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이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중독은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라는 관점으로만 다가가보았지 전혀 관계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았고, 저에겐 아빠 순장님을 포함하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라스트로 세번 째는 제가 일중독일수도 있겠다 였습니다. 저는 쉬는 걸 엄청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거나 저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는 거 같기에 일을 만들어서 하는 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계속 들어왔기에 관련하여 질문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후, 정말 고맙게도 함께 특강을 들었던 김예지 순원의 독려로 간사님께 질문을 하러 나갔습니다.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니 간사님께서도 일 중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중독되거나 그냥 일하지 않는 거보단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 중독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배워나가려합니다. 노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행히도 ‘노는 것’과 관련하여 저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순장님께서 동국대학교 CCC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특강을 듣고 난 이후 캠퍼스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특강 내용에 대해서 나눔을 했는데 가장 기억이 났던 건 나영순이 들었던 특강 내용입니다. 리더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직전학기에 팀플을 하면서 리더와 조원 역할로 둘 다 섬겼는데 리더를 한 팀플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원래는 그것에 대해 팀원 탓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내용을 듣고 제가 팀원들을 잘 이끌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리더쉽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후 저녁 집회 때 정말 2박 3일 중에 가장 신체적으로 힘들었고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회개했습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이온음료를 섭취하였지만, 몸에 힘이 빠져 앉아서는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서서는 가만히 서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든 순간 가장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한 것은 바로 저희가 항상 캠퍼스 채플이나 팀 채플이나 CCC 행사를 할 때마다 외치는 “민족 복음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미래가 없다 생각하여 다른 국가로 이민가자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민을 위해 제가 얻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는 뭐가 있나... 등 외에도 많은 행동을 통해 한국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갖은 중독으로 점칠된 저마저도 사랑하신다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이 민족조차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 저의 100개가 넘는 기도제목들이 녹아내려 한 가지 외침을 제 마음에 울리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자! 꼭 오게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한 후, 헌신 결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헌신 결의서에는 2025년에 몇 명의 순원을 키울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헌신할 것인가, 캠퍼스를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2025년 여우사이에 초청할 나의 태신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 민족 복음화에 대해 회개하고 재결의를 한 그 시점에도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몇 명의 순원을 키울 것인가 였습니다. 이는 순원인 저에게는 순장을 결단하겠다는 선언과 같았고 빠르게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결국 귀결되는 것은 어찌보면 웃길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저는 한 명의 순원을 키우겠다 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사실 앞서 많은 결단을 한 후,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며 순장으로서, 그리고 순원으로서 함께 성장한 하나의 순(筍)을 키워 그 순을 바탕으로 청명한 숲을 만들어 가보려 합니다. 그 숲에는 어떠한 나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살아있는 뿌리로 결국에 숲을 이루는 대나무같이 순을 꿈꿉니다.

그렇게 이튿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팀 모임을 진행한 이후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는데, 저는 나눔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땐 아직까지 나눔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 같아. 이번 수련회를 통들어 몇 가지 저의 패착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장 28절]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의 아쉬움 마저도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캠퍼스 모임을 마치고 생활 순모임하고 아마 새벽 1~2시쯤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섭식을 한 후 그렇게 폐회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온실을 떠나 전쟁터로 떠나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한 후 2025년 CCC의 목표를 바라보는데, 정말 “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유학생 선교를 캠퍼스 내에서 한다고...? 나는 영어 문서 밖에 못 읽는데....?’ 이런 생각이나 아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한다고..? 나 한 번도 더포(The Four)로 생판 남에게 전도 안 해봤는데...?’과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1일차 저녁 집회 설교 내용을 ,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지만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1.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로마서 5장 19절] 라고 말씀에 있듯이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저 또한 순종함으로 전하게 하소서.
2. 저는 2025년도 순장을 서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는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간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멀어져있으면서 순장 서기에 대한 저의 결단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 서기에 대한 결단이 잊혀지거나 흐릿해질 때 마다 다시 한 번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방학이 되게 하소서
3. 이번 금식 수련회를 가면서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어떠한 비전을 향해야 할 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저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비전을 알게하사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소서